49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 지금 존재하는 세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행한 의사결정이 축적되어 지금 이 세계의 풍경이 그려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 세계의 경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까지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남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라고 자문해야 할 것이다.

• 미래라는 것은 예측하기보다 오히려 비전으로 생각하며 그래내야 한다는 사고관은 다른 각도에서도 보완된다. 예측은 빗나가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 문제가 위기감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졌던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한 예측이 지금까지 대부분 빗나갔다는 사실을 아는가?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
인구동태 조사와 같이 통계가 견실하게 정비되어 비교적 미래 예측을 하기 쉬운 분야에서도 이 모양이니 다른 분야는 차마 봐줄 수 없을 정도다. 전형적인 예가 컨설팅 회사나 싱크탱크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래 예측'이다. 이는 절대로 컨설팅 회사의 능력이나 예측 모델의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전문가의 예측은 빗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측'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마지막으로 앨런 케이의 메시지를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